

투데이 칼럼

‘생명의 문’ 비상구를 지켜라!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다.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의 최우선 목표도 인명구조이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손으로 짤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수많은 화재현장에서 생각한 것은 바로 비상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화재 등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 이것이 바로 비상구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활의 편리성을 내세워 길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초고층화 및 초대형화 그리고



최길웅

고창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지하구조 건물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연한 결과로 내부 구조는 더욱 복잡해져서 마치 미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가 경산시 생활하면서 주변에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물건이 쌓여있지 않은지, 문은 잠겨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최근 화재사태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6월 군산 유충업소 화재에서 비상구 장애물 방지 및 비상대피 실패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고 우왕좌왕하게 되어 결국엔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화재현장은 바로 '아비규환' 그 자체다. 건물주 등 관계자는 건물의 비상

구와 소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해야 한다. 특히,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고, 문을 잠그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속담에 '꼭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서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젠 깨어나야 할 때이다. 내가 이용하는 건물의 비상구 위치와 파단에 방해되는 물건이 쌓여있지 않는지, 잠겨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함으로써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독자제언

탄력순찰을 신청하세요

길을 걷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순찰자를 마주하게 된다. 이때 경찰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순찰을 하고, 순찰지역은 어떤 이유로 정해지는 걸까? 지금까지 경찰은 경찰 자체적으로 순찰방식과 장소를 정하였다. 그러나 순찰이 필요한 장소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다. 기존의 가지고 있던 순찰방식을 탈피하여 순찰이 필요한 장소를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새로운 방식 '탄력순찰'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탄력순찰 대상은 범죄 두려움 및 각종 불안요인이 해당되고 우범지대가 되는 빈집 귀갓길 등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순찰신문고'라고 검색하거나 'patrol.police.go.kr'에 접속하여 순찰을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입력하여 순찰 일시 및 사유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경찰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탄력순찰홍보 실론 및 지도에 희망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듯 순찰장소와 시간을 112신고 시간과 비교 분석하여 순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찰하게 되며 매분기마다 순찰요청장소를 초기화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도 탄력순찰에 대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탄력순찰 신청이 많을 경우 관내 주민들의 불안지역, 불안요인 등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주민들이 치안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동네 안전한 치안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견우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통령 연설 중 아프간 대통령궁에 탈레반 총류탄 공격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21일 카불의 사-에-두삼세라 사원 앞에서 이드 알-미드하 휴일을 맞아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휴일 메시지를 발표하는 아프간 대통령궁에 탈레반 반군의 총류탄 공격이 가해졌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설

고용쇼크 극복해 내야

전북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 관청은 일자리 1만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군산과 남원과 익산과 전주에서 연거푸 안 좋은 소식이 누적된 결과이다. 관청은 일자리의 감소의 여파로 고용의 질도 형편없이 떨어졌다. 관청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일용직만 1만 2천 개 이상 늘어나버린 것이다. 그동안 전북의 기간산업의 역할을 해주었던 자동차 분야도 문제가 심각하다. 일자리 감소폭이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한다니 말이다. 전북 경제는 지금 고용 쇼크로 비틀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최고 현안으로 정해 일자리 현황을 늘려야 한다고 해야 한다. 대량 실직 피해자들이 풀이 죽어 있는 지금, 전북도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도대체 희망의 근거랄 게 전혀 없는 어둠 터널형국이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우선순위의 관심사를 정하고 그에 힘을 집중해야겠다. 가장 시급한 현안에 우선적으로 팔 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는 당부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던 바 그 우선순위의 현안은 바로 일자리 창

출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북이 갈수록 희망과 반비례하여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 유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전북 자존시대를 말했고 전북대도의 시대를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슬로건이 언어수사 표현에 그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다른 광역 시도들과 비교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지역의 미래를 선도해야 할 이들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급한 현안에 힘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역척스러움도 보여야겠다. 다른 광역 지자체 지역은 인구가 불어나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전북도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하지만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한 소리다. 전북에서는 그대로 낫다는 전주에서만도 해마다 3천명의 젊은이들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판이다. 전북의 현주소가 늘 이러므로 도민들은 마음 고생이 심하다. 전북도는 잃어버린 일자리 만큼 제육을 되찾기 위한 행보도 힘차게 보여야겠다.

도민 1인 총소득 전국 최하위 수준 여전

전북도의 루인이 오창되는 때가 아닐 수 없다. 도민 1인당 총소득이 전국 꼴찌라는 보도가 해마다 반복됐었는데 말이다.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요구와 함께 지역 경제의 약화를 열려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다. 전북도는 도민의 밑에 따라 지역 발전 가능성을 위한 목적을 보여야겠다. 발전 현안을 중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북도는 발전 의지를 다져야 한다. 도민의 요구를 현안으로 끌어올려 반드시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 뚜렷한 행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슨 현안이고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지역 발전 사업의 맨 앞장에 있는 새마을만 해도 그렇다.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자면 거북이가 생각날 정도이다. 그리고 전북 경제와 새마을 사업과의 관계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미미하다.

전북도는 지금 지역의 일자리 현안에 대해서 전혀 크고 있지 않은 태이다. 관청은 일자리가 임청 증발했는데 뵈가 대책이 있어야겠다. 기대하지 않은 일용직 같은 일자리만 일사라고 있으니 고용 쇼크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도민 개개인의 소득을 구체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신경을 써야겠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해왔다. 그런데 그 공포가 오히려 실득력이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웰빙 고장이 아니라는 소득이 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도록 1인당 총소득 전국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므로 힘을 쏟는 주축적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 현안을 챙기고 있다 해도 그게 소득과 관련해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가치하다. 겨우 달걀껍질과 전북도는 분별해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을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하였다. 그 약속들에 대한 기사가 거짓 희망이 되게 해서 결과는 안 된다.

전주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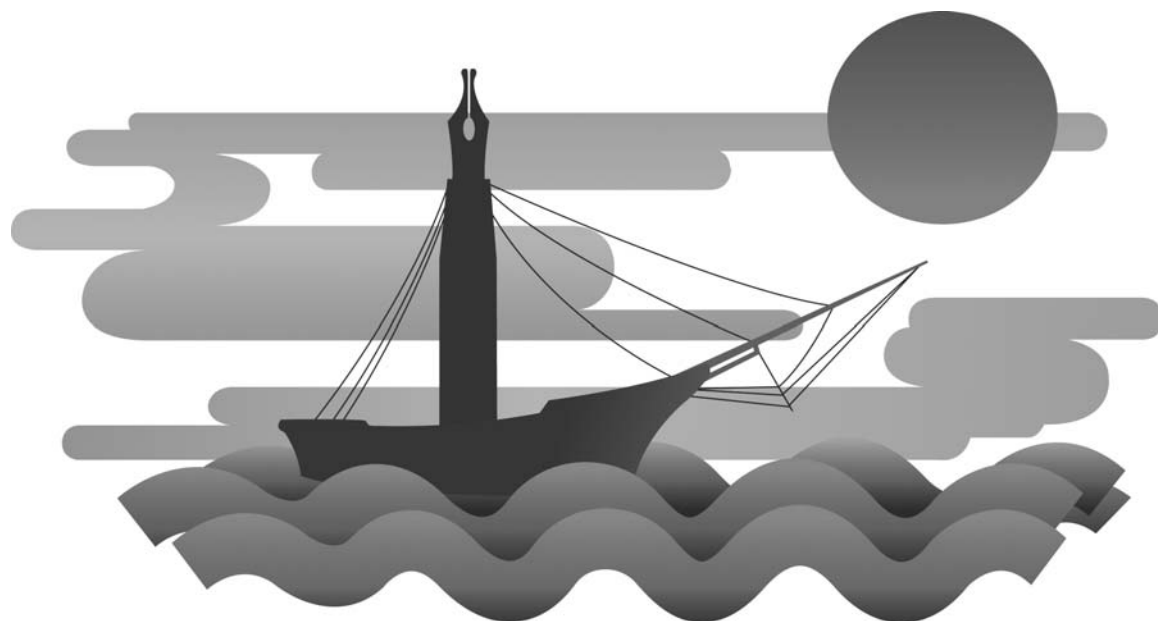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서의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